

<활천>에서 발췌한 윤낙영 목사의 초기 자료 및 간증문
(윌리엄 커닝햄, 존 채이스 및 김은석 목사와 관련된 인물: 성결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및 침례교회에서 목회자로 활동)
조동호(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일본에 설립된 한국인 대상 한인동경성결교회

1. 만주 용정 한인 성결교회(1925년 3월)에 이어 일본 동경 한인 성결교회 설립(1927년 3월)

일본 동경에 거주하는 7만여의 동포의 심령을 위하여 선교사 한사람을 파송하기로 작정하였는데 거기에 갈 형제는 지난 4월에 동경성서학원을 졸업한 윤낙영 형이라더라. <활천> 1927.5. 통권 제54호 p54

2. 윤낙영 전도사 간증 <활천> 1927.6. 통권 제55호 p41~
참사랑은 영혼을 구원 (윤낙영 군의 구원 받은 실험담)

1) 13세부터 방랑생활

나는 경기도 수원출생으로 13세 소년으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아라사로 가서 수년간 유술을 배워 상당한 계제를 밟아 득업한 후에 다시 본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뜻을 뒤쳐 가지고 일본 동경에 가서 어느 직물회사에서 견학하여 썻겻(주: Jacket의 일본말 샤켓토/자켓토의 우리말 된소리) 직조하는 법을 배워 가지고는 자업으로 시작하여 금전이라고 7-8만원 가량을 저축하고 직공도 수십인을 두었었으며 각처로 수출수입이 상당하여 동경에 있는 우리 조선인의 생활치고는 아주 풍족하였었습니다.

2) 처자, 가옥, 금전이 일본간에 초토화

이 세상에는 불우지환이란 것이 많은 중 누구든지 일본의 관동진재라 하면 듣기만 하여도 그 비참한 광경을 보나 다름이 없이 느끼게하는 바어니와, 이때에 나는 자기와 거래하는 어느 상점에 가서 회계할 것을 다하여 청장(주: 清帳-회계나 셈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끝마침)한 후에 작별하고 상점문에서 나와 자동차를 타고 약 50보 가량 진행하자 홀연히 음향이 나며 지면이 흔들리매 자동차가 전복이 되어 길 아래로 떨어지는지라. 간신히 나와 도망하려하나 땅이 너무 흔들리는 까닭에 자꾸 넘어진즉 촌보를 움직이지 못하고 땅에 그대로 엎드려 본즉 내가 먼저 들어가서 회계를 달고 나온 회사는 매우 큰 회사라. 300여명의 사무원이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동시에 3층 벽돌양옥이 붕괴하여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는 것을 볼 때에 먼저 생각나는 것은 나의 처자와 금전과 가옥과 직공들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동리편을 향하여 바라본즉 염염(주: 炎炎-이글이글할 정도로 몹시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한 불길은 천지를 다 태울듯하고 몽몽(주: 濛濛/矇矇-연기나 안개 등이 짙고 자욱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한 연기는 방향을 분별키 어려운 중 사방에서 남녀노유의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는 애처로운 음성은 차마 들을 수가 없었는데 지진이 조금 그친 후 나의 집에 돌아와 본즉 가옥과 직조기계와 직공과 처자는 다 초로(주: 草露-화마에 휩쓸려 이슬처럼 사라진 참상)가 되고 구원받은 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불에 타는 재목을 헤치고 본즉 해골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어느 것이 처인지 공인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조사하여 처는 금반지를 끼고 아이를 안고 지전뭉치를 들고 나오다가 문간에서 치어죽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오호라! 이때에 나의 마음에 아픔이야 무엇으로 형언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화마 속에서 구원하심은 오늘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려 하심인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때에 우리 조선인의 형편을 보면 백척간두에 어찌할 수 없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중략)

그때에 나는 그 참담한 광경을 볼 때에 두 눈에서는 동족애의 혈루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중략)

명고옥(주: 나고야)으로 도망할 때에 낮에는 감히 얼굴을 내놓지 못하고 어느 굴속이나 잣더미 속에서 피신을 하고 밤중에 여행을 하였으나 위험한 지경을 당하여 생명을 빼앗길 뻔한 적이 1,2차 가 아닐 뿐 아니라 전신에 4,5처에 칼을 맞은 흔적이 아직도 명백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에서 구사일생으로 명고옥에 도착하여 우리 동포의 안부 를 살피던 중이올시다.

3) 목사의 팔을 꺾고

명고옥에 가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어느 날 저녁에 한곳에 이른즉 일본성결교회 목사 석천씨가 북을 치면서 예수교는 사랑이라고 설교하는 것을 듣다가 큰 반동심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하고 달려들어 5,6인[일]을 매어 꽃아버리고 목사의 팔을 잡아 두르는 바람에 목사는 팔이 부러져서 병원으로 메여가는 등 사방에서는 저 놈 죽여라 잡아라 하며 설교 장은 큰 소동이 일어나서 나의 신변에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교회 신자들은 나를 떠드는 군중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를 보호하여 예배당으로 인도한 후에, 목사의 부인은 자기의 남편 병원에 간 것도 생각지 않고 오직 나의 머리에 손을 안찰하고 밤새도록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그때에 취한 척[적]하고 누워 있으면서도 그 뜨거운 사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동시에 나도 종금(終今) 이후로는 나도 내 동족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리라고 결심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떠나 다시 이리저리 표류여 돌아다니는 중 그 결심도 사라지고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굴러굴러 동경 삼하정이라는 곳에 이른즉 거기에도 동양선교회 일본성결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는 황천이라는 열심있는 청년이었다. 그는 매일 저녁이면 부부가 나와서 부인은 북을 치고 황천목사는 사회하고 또 설교하기를 변함없이 하였습니다. 그때에 나는 생각하기를 어디 저 목사도 명고옥교회 석천씨와 같은가 시험하리 하고 모래를 많이 준비하여 가지고 있다가 설교하는 자의 전면을 향하여 던진즉 그 눈으로 모래가 들어가서 눈을 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나는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연 이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는 그렇게 기도한 후에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곧 따라가고 싶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서 감히 예배당 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주저하고 섰을 때 황천목사 부인의 인도를 받아 겨우 예배당에 들어간즉 목사는 설교를 마치고 간절히 권면할 때에 참으로 굳게 굳게 결심하고 예배당 문밖을 나서니 때는 이미 11시나 지나고 겹하여 일기는 추운데 그때 나의 육신의 형편은 아주 냉락하여 돈도 없고 돌아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고로 할 수 없이 예배당 밖에 처마에 웅크리고 앉아서 밤을 지새게 될 일인데 그때 마침 황천목사 아내가 자다가 그 광경을 내어다 보고 침의를 입은 채로 뛰어내려와 2층으로 인도하며 말하기를 형제가 그렇게 잘 곳이 없을잔대 어찌하여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냐하며 자기 두 내외가 자던 이불속으로 나를 들어가라하고, 자기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자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니 그것은 진실로 거짓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인줄 알게 되었습니다.

4) 신앙수양

그래서 그때부터 황천목사는 나를 위하여 있을 처소와 직업을 구하여 줌으로 이제는 주리고 일어 죽을 염려는 면케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에 어떻게 하면 나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의 동족을 구원할까 생각하였으나 진실로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문배달을 하기를 시작하여 약간의 수입으로 성서학원에 입학코저 한즉 원장은 중학교 졸업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고 조선에 가서 조선인 성서학원에서 공부함이 좋다하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원비수양생이 아니라 자비로 방청이라도 좀하자 한즉 그도 불허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처음에 억지로 말석을 강점하고 청강을 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원비생도 총중에 들어가 앉은즉 대단히 거북하게 생각을 하고 냉대를 하는 모양이나 나는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고 매일 출석하여 공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비의 곤란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신기한 권능으로 인도하사 수양을 마치게 하시고 금일에 이 전도자가 되게 하심에 대하여 그의 뜻을 따라 이 몸을 바쳐 동족을 위하여 진력하려합니다.

윤, 박 형매의 결혼식_〈활천〉 1927.7. 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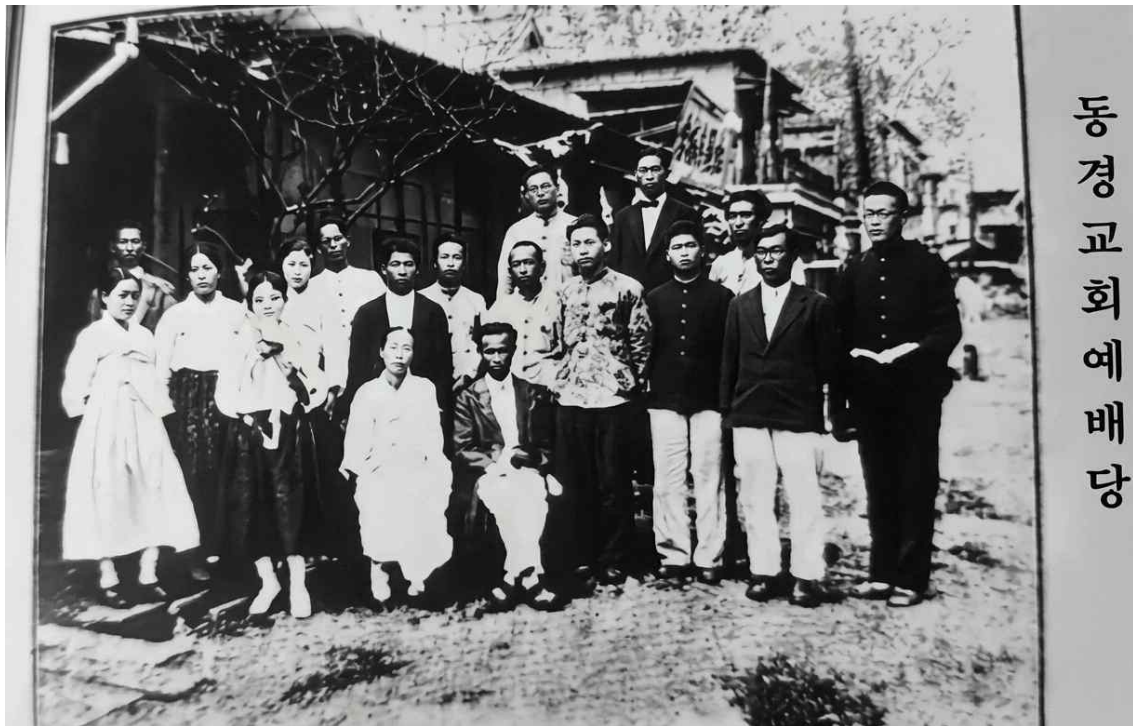
일본 동경으로 파송을 받은 윤락영형과 간도 용정교회의 박로희 자매와의 결혼식은 6월 20일 하오 네시에 박영순의 주례로 경성성학원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임명기_〈활천〉 1928.5. p60 임명기

소속: 이사회직할

동경교회 윤낙영 동경부 하대정정 삼하 488

동경성결교회 전경 1928.11.



약사 p132 윤낙영 전도사. 동경성결교회

동경교회 대발전 〈활천〉 1928.12. p55

작년 6월 25일 창립되어 저간 진퇴곡절이 많았으나 윤락영전도사의 끊임없는 기도와

끓어 나오는 충성스러운 전도로 말미암아 신자다운 신자가 하나 둘씩 생기게 시작하여 현재 근 20명씩 모여 예배 보는 중 한 가지 크게 위로되는 바는 신자 중에 8,9인의 기도가 있는 것이라 하며 특히 요사이에 와서는 성신의 크신 역사가 교회 전체에 임하는 동시에 그 불길이 애지현과 그 외 2,3처에 까지 파급이 되어 금년 9월분에 애지현 악미군 전원정에 지교회를 설립하였는데 신자는 결심자까지 합해서 모두 160여명이나 되오며 그 외 2,3처에도 기도소를 설립하였다는바 이와 같이 먼 지방에까지 지교회와 기도소를 설립케 된 것으로 말하면 전도사가 그곳까지 가서 전도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윤전도사의 끊임없는 기도로 동경 본교회 신자에게 성신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사방에 복음을 전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아름다운 일은 전도사 한 사람으로 동경본교회와 3,4처의 지교회 및 기도소를 인도할 수 없으므로 먼저 동경 본교회에 교무집사(전북 금산출생, 일찍 장로교회에서 민다가 동경으로 건너간 후 우리교회에 다니며 새로운 은혜를 받은 김성복 형제)일인과, 서무집사(경국 군위출신인 성서학원 재학중인 박동희형제의 장남 박진환 형제)일인을 세워서 본교회의 일을 보게 하고 윤전도사는 각처로 순회하며 인도하기로 작정하였으나 애지현지회는 거리가 너무 먼 관계로 실행하기 어려워 걱정을 하고 있는 중 류재현이라는 형제(일찍 피어선 성경학원에서 2년간 수업한 형제)가 본부에서 전도사를 파송하기까지 임시로 노동하여가면서 역사를 만들겠다고 자원하고 그곳으로 가서 고생당하는 중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마지 아니한다더라.

p56 윤낙영 전도사는 지난 5월 15일 득녀하고 귀섭이라 명명하였다.

기금수입보고 1928년도분 <활천> 1929.3. p57
동경교회 2월35전

윤전도사는 개인적인 험악한 인생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동족 구령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동경성서학원 전도인 양성 과정을 고단하게 마치고 동경에 거주하는 동족들을 위해 열렬한 구령자씨의 삶을 살고 2년만에 지교회인 애지현성결교회로 전임되었다.

제2대 담임교역자: 강송수 목사

교회설립과 초대 담임교역자로 구령활동 전념하던 윤낙영 전도사가 1929년 애지현성결교회로 전임되고 후임으로 강송수 목사가 부임해 왔고 동경지방 감리목사대리 겸직했다.

임명기 <활천> 7권, 1929.4. p61
동경지방/ 감리목사대리 강송수
감리목사주재지 동경
동경교회 강송수 김득의
애지현 윤낙영 김덕의

의사를 보임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예배출석하게 되었다 했으니 그 여공들의 놀라운 신앙이 교회의 존재가치를 드높였고 감동을 주었다.

동경교회 전도사 윤락영씨는 해교회 교세에 대하여 여좌히 보고하다(통계표 부록참조).

본교회는 작년 년회 후에 신자들의 귀국 혹은 이전으로 인하여 회집인원수가 7~80여명에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교제는 이것을 저희 책임으로 알고 요한복음 제9장 31절의 말씀 위에 서서 근 한 달간 매일 조천마다 신앙으로 기도하는 중 신자가 차차 증가되는 동시에 송도, 새천곡, 천기, 애지현, 구주 방면으로 이사해 간 신자들에게서 여비

와 ‘와 달라’는 청원을 받고 즉시 그 모든 지방을 순회한 결과, 새천곡에서는 기도소, 애지현에는 지교회를 설립하게 되자, 그 인도자로 본교회 류재현이라는 형제가 자급적으로 동지교회를 인도해주기로 자원하고 곧 실행하는 중인데 동 지교회에 한가지 특별한 것은 원적을 경기도 인천에 두고 생활난으로 도일하여 당지 모 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본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여 교유 5인이 있어 자기들의 구원의 경험을 그 공장 공녀들에게 증거하는 일방 100유여명을 본교회에 출석케한 결과, 그 공장 주인과 감독에게 무수한 편박을 받게 되어 심지어 유형이 낭자하기까지 4,5차 구타당하였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함이요, 공장에서 노동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함인바 육보다 영을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로서는 귀 공장에서는 나갈지언정 교회에 출석치 않을 수 없다’고 함으로 주인과 감독도 마침내 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보면 신앙 앞에는 무엇이랴도 당적할 것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1929년 구령현장

1928~9년 동경성결교회 대표 성도의 씨명은 활천 1929년 1월호 광고란에 기록되어져 있다.

윤낙영尹洛榮 박노희朴魯姬 김성복金成福 박진환朴珍煥 유재현劉載獻

그리고 조선예수교동양선교회성결교회 제2회 연회(1930. 3.5~9)가 경성성서학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각지방 각교회교세보고(1929년도분)가 있었고 이사회직할지방에 소속된 동경교회는 윤낙영 전도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했다.

신도 총수	세례인 총수	신세례 인수	학습인 수	월정헌 금총액	자급지 불액	헌금총 액	지불총 액	지교회	기도소	주교 생도
50	22		7	50원	?	328.28	298.50	1	1	20